즉시 배포용: 2022년 5월 17일 KATHY HOCHUL 주지사

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를 위한 첫 번째 부스터샷 투여를 승인하는 FDA에 대한 KATHY HOCHUL 주지사의 성명

"오늘, 유명한 소아 건강 전문가들과 미국 식품의약청의 의사들은 5세에서 11세 사이의 아이들을 위한 첫 번째 코로나19 부스터샷 투여를 허가했습니다. 저는 아이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질병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막을 제공하기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려 온 뉴욕 전역의 부모들과 보호자들에게 특히 반가운 소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질병 통제 및 예방 센터의 권고안에 따라, 뉴욕은 이 새로운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부스터샷을 제공할 준비를 갖출 것입니다.

부스터샷은 널리 이용 가능하고, 무료이며, 안전합니다. 그리고, 코로나19로부터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한, 부스터샷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. 자격을 갖춘 뉴욕 시민의 절반 이상이 부스터샷을 접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이 생명을 구하는 도구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따라서 부모와 보호자에게 드리는 제 메시지는 이 매우 좋은 소식에 이어 우리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.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자격을 갖추는 즉시 아이들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하세요.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. 우리 아이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새 학년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.

주정부 차원에서, 우리는 이 팬데믹을 안전하게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는 동안 모든 뉴욕 시민들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보장할 것입니다."

###

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: www.governor.ny.gov
뉴욕주 | Executive Chamber | press.office@exec.ny.gov | 518.474.8418